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張作霖의狂喜와 民衆黨의警告
—田中內閣出現에對하야—

一

憲政會의若槻內閣이넘어지고政友會의田中內閣이생겻스니그는日本의現下事情에비최여보아서가장順當한途程을밟아나아간것으로볼수잇는것이니 憲政會內閣의政策을不當하다고攻擊하고그에對하야政府에서責任을지고물러안는以上 그敵黨이나또는그與黨으로볼수잇는政本黨이政權을잡지못할것은當然한일이오또中間的內閣을構成하야一時的休憩所로하엿다가 다시憲本聯盟側으로 政權을잡아단인다는것도 퍽우수운일일것이니憲政會의反對黨되는政友會가政局에當하게되것은 常識的判斷을 커버리지아니한것이라하겟다

二

커三黨首妥協과가튼것은매우苟且한길을取하엿섯던것이니그에比하면今番의日本政局의變動相은 매우理論的이라고할수잇는것이다 이는形式問題에關한것이려니와 實質的理論에들어가서도 樞府의踏子가 憲政論을내세워서 政府를 攻擊한것은理論잇는것으로 볼수잇는것이니 二億圓이나되는國家負擔을行하야 一銀行을救濟하려하면서議會에뭇지아니하고 緊急勅令에依하려고하엿다는點에잇서서는적어도相當히議論의餘地가잇는問題로보지아니할수업는것이엇다 다만內閣이議會外의勢力에依하야 變動된다는것이立憲의常道論으로보아서 不美한點이라고하겟스나 그는日本憲法制度自體問題에도屬한것이니 여긔에서길게論議할必要가업다 二億圓問題로하야 辭職을본內閣을 反對黨된政友會가繼承한것은 條理明白한바가잇는것을보겟다

三

그러나 그것은아주들처난表面的經過이고 그內面的理由에이르러서 생각하지아니할수업는것을생각하지아니할必要가잇는니 若槻內閣의對中政策이軍閥及官僚一味에게 好感으로써迎合되지못한것이 한가지內閣更迭의重要한原因을作할것으로볼수잇는것이다 十七日의樞府本會議에잇서서의 伊東巳代治氏의緊急勅令案否決에關한演說은政府攻擊에잇서서 餘蘊이업섯스니 氏는特別히힘을들여 幣原外相의對中政策을攻擊하고그에關하여는 外相에게對하야激烈의 職責을 가지겟다고放言하야 萬丈氣焰을吐한바잇섯나니今番 日本政變의 意義는國際的으로보아서 伊東氏의指摘해낸 對中政策에 잇는것을볼수잇는것이니 田中內閣組織의 報가傳함에 張作霖은 拍手하야 歡喜의뜻을表하고 日本社會民衆黨으로부터서는 特別히警告를發하얏다는것으로보더라도 그一端을살펴볼수잇는것이다 田中氏는西伯利出兵當時의實責任者로서 三百萬圓의機密費問題가 그에關連되어서內外의觀聽을번거롭게하던것은著明한事實이요 또[illegible]責任者로서 在滿朝鮮人[illegible]그一身上[illegible]事實이다 그가지금當局하게되엿스니사람으로하여금 지금과가튼極東政局에잇서서 無理한政策을取하야 反動의氣勢를助長하지아니하게할가하는疑懼를가지지안케할수업는바잇다 張作霖의狂喜는 田中內閣이中國에잇서서反動政策을助長할念慮가잇다는것을말하는것이요 社會民衆黨의警告는 日本內地에잇서서 無產階級의新興勢力을 壓迫하리라는것을말하는것이니 그結果가朝鮮에 또如何한影響을미치게할것일가도 생각하지아니할수업다 이田中內閣의出現은日本, 朝鮮及中國에잇서서의解放을要求하는民衆들의 特別히警戒할現象이라는點에잇서서 取大한注意를要할것이라고보지아니할수업다 張作霖의狂喜로마저진田中內閣은 擴張政策을徹底히하여갈것인가?

佛領印度에도 叛亂陰謀가暴露
佛領印度當局發表

(巴里二十一日發) 佛領印度支那當局은佛蘭西軍艦가上海로出動한後에土人의叛亂을惹起시키고자하는過激主義者의陰謀가過般의北京勞農大使館內搜查事件의結果未然에防止되얏슴을發表하얏는데 即同大使館內로부터押收한文書中에右計劃의煽動者의名簿가發見된外닭에佛蘭西警察은直時一齊히土人을監視하더라

墨西哥에서 土匪, 列車에衝火
一百八十五名이燒死 墨國初有의變事

(桑港二十日發) 墨西哥『패헐라아』(首府『시맥코』의西北約三百五十哩)에서急行列車가五百名의土匪에게襲擊되엿는데土匪亂射하야百八十五名은車體와共히燒死하고其他彈丸에마저負傷한者는數를알수업는데土匪는列車의出入口를閉하고火를放한外닭에一人도救出되지못하얏다는바墨西哥史上未曾有의虐殺事라고하며尙히外國人이잇섯는지업섯는지는알수업더라

『國民政府보다 保守分子를一掃』
第三國際黨의『씬』氏聲明

(莫斯科二十日發) 莫斯科共產黨第三『인터내슈날』의首領『씬』氏는同黨을代表하야共產黨은須히蔣介石에게對하야蹶起하야中國國民政府보다保守分子를一掃치안흐면안된다고聲明하얏더라

武漢政府와經濟絕交 上海銀行團決議
銀行錢業保護通電

(上海二十一日發) 武漢政府가元銀集中條令을公布하야元銀의使用及搬出을禁止함에對하야上海銀行聯合會는當分武漢과의金融을停止하야經濟絕交를斷行한다는宣言을하얏는데尙히蔣介石도各省金融界에影響됨이大함을見하고各省長官에게銀行錢業을保護하라고通電하얏더라

東中電線 回收劃策

(哈爾賓二十一日發) 當地中國官憲은東中鐵道의電信電話全部를中國側으로回收코자秘密裡에對策코자함으로露西亞側은大狼狽하야目下頻頻히對策을講究하더라

英兵中國行

(잠무스二十日發) 『잠무스』 汽船『누라리아』號는陸兵一千名을태워가지고中國을向하야出發하얏다 其中에는自動運搬車가잇는一個中隊、陸軍購買組合一行及航空隊一個中隊도含하엿더라

英兵武裝堂堂

(倫敦二十日發) 英陸兵一千名과共히機關銃自動運搬車先發第一中隊는二十日當地出發『사산프톤』에向하엿는바同隊의裝備는一團半에及하고工場用『또락크』二輛運搬用『또락크』二輛이잇는外에自働車一、自働自轉車二、『사이드카』二輛、六輪貨物車五十一輛이잇서中國普通道路에는一時間三十乃至四十哩를疾走할수잇겟고道路가조치못한村落의길이라도二十乃至二十五哩는疾走하리라더라

中國官憲이 共產黨壓迫

(哈빈二十一日發) 哈爾賓에서中國官憲의共產黨壓迫은益益激甚하야秘密集會의取締를一層嚴密히하야家宅搜索은每日施行되는데露國側은非常히脅威를受하야領事館은避難을準備中이더라

臨時閣議서 政務官選拔

(東京電) 廿一日의臨時閣議는午前中臺銀救濟의前提로臺灣銀行頭取로부터詳細히聽取하야對策協議에入하고正午에는暫間休憩하엿다가午後에續行하야政務官의銓衡을하엿더라

議會는不召集
他應急策講究

(東京電) 新內閣은臺銀救濟[illegible]財界安定을爲하야臨時議會를召集하리라고觀測하나政府及與黨首腦部의間에는此際에臨時議會를召集치안코他의應急策을講究하기로大體一致되엇더라

齋藤全權 國公訪問

(東京電) 齋藤軍縮會議全權一行은二十二日午後八時四十分東京驛發列車로出發하야二十三四의兩日은京都洛東旅館에投宿하고滯在中에洛北淸風莊으로西園寺公을訪問하야軍縮會議의政府根本對策方針을報告하야其諒解를求할터이며尙히形便에依하야는夫人과共히伏見桃山御陵에參拜하리라더라

預金支拂準備

(東京電) 臺銀本店는臺灣內의預金高三千六百萬圓의取付의準備로十九日大藏省에對하야無準備의限外發行을하라고認可를申請하엿는데大藏省에서는此를許可치안키로決하고臺銀에通知하엿다然이나臺灣總督府는統治上預金支拂은不得已한關係上不認可임도不拘하고臺銀에臺灣府發行銀行券二千餘萬圓을此際에發行하야預金支拂準備에急速히하기로하엿더라

群山開港紀念 市民運動會
五月一日開催

群山에體育團體인平和團에서는例年과如히五月一日은群山開港紀念日임으로此日을卜하야市民大運動會를開催하리라는데例年보다一層盛大히하기위하야競技의種類도增加하야大規模的으로擧行하리라는데運動場과競技種目은追後發表하리라더라(群山)

間島생각을읽고
(所感의一端)(一)
江村生

李兄의間島생각을읽고 나는이 붓을들게되엇다 勿論그文章이나그內容에包含된思想的見地로서批評과主張의相異가아니라『間島』라는그것이나로하여금어떤感想을자아내고 또한間島移民이라는그것이깁흔印象을일으키는것이다 언제인가내가松汀과開城사이에가는車中에서偶然히間島移民을만나게되엇다 移民이라는것을 移民!이移民이라는名稱을누가준것이냐?間島移民이란말을흘리고恨만흔故國山川을등지고祖上의墳墓가아직도남어잇는이江山을던저버리고가게되는그理由가어듸잇는것이냐?亡國의魂이사무처잇는外닭이냐?主人의處地가바뀐外닭이냐?男負女戴도間島를向하야는울겨운可憐한同胞와血族이업다마입을생각할때에李兄이아니더라도間島를向하야同胞의安否와兄弟의消息을뭇고저하며뭇고저할것이다아니다 同情의두줄기눈물을흘니지못할것이다 間島!間島야말로우리同胞의第二故鄉이다 歷史的事實로빗추어본다면間島는우리의領地이엇다 그뿐아니라우리祖上의『피땀』이뭉처잇고또然한文化가남어잇는곳이다 그러나於今하야는異域이오外國이다 이異域을向하야悲慘한울음을울고가는同胞의悲哀도悲哀려니와보내는朝鮮內地의同胞도어찌그惻然에同情함이잇지안을것이냐?

◇可憐한白衣族아너가는곳어데런가?◇

華麗한祖國疆土누구에게맛기고서 떨치고먼異域에를누구차저간단말가!

◇그대들의흘린눈물豆滿江에가득하고 兄弟들의한숨모혀北滿風이된단말가 갓득이나쫏긴부리마저먹자면빈다네!

◇兄弟야落心마라우리에게봄(春)이오면쏫(花)피고종다리우는新綠花동산에서 고생사리옛말삼아깃버볼고뉘볼데니다네!

李兄이間島에서五個星霜이나同胞들과함께하야悲慘苦鬪를하엿슴은어느곳에서잘알엇다 그런外닭에間島는생각함이더욱懇切할것이다 그리고또한懇切한그만큼李兄의몸은비록間島同胞와는동지고잇스나精神은 오로지間島를爲하고 間島同胞를엇지안고잇슬것이다 그럼으로社友中에서도李兄만은 間島事件이나間島일이라고하면 누구보다도먼저발벗고나서서애를쓴다 李兄은朝鮮的間島士人이라고하야도過言이아니다 平日에도李兄은間島를생각하니이만큼 懇切하다 그런外닭에우리는李兄에게向하야『馬賊頭目』이라고別名을씨워준것이다 馬賊이라는말이지나는馬賊이라한다 그러고그氣像에對하야讚嘆하는바이다이러케말하면或은馬賊이되고십흠이라든지 馬賊을崇拜하는者라고 誤解하야『색기馬賊』이라든지『늙은馬賊』이라고할사람이잇슬지는모르나내가馬賊을생각하는方面의一端을들어보면그럴듯하다고点頭할것이다 馬賊이란綠林客이다險한山과兀立한메색리(巒)를平地와가티橫行自在하며豐武가壯한富豪牙城을울고突進하야關下에無人과가티날뛰다그러하야弱者를保護하고强者를抑制하는(制中에그런치안혼者도잇지만)義俠心이잇는義賊이다우리도이不自由의拘束에버서나서間島로가서馬賊이되어이모든부러운의貪金牙城을뭇지르고품고품어온怨恨에對한復讐를하야보고십다는뜻으로의憧憬이오嘆息인것이다何如間馬賊을생각하고間島를朝鮮에는이가큰생각이욕소슴을치는바이다 또다시내가間島에깁혼印象을가지고잇는理由가잇스니그것은政治上으로든지經濟上으로든지將次朝鮮問題는이곳이中心으로일어날것인오또因함니다거긔모혀잇는數百萬同胞의胸中에맷처잇는그不平만은언제든지풀리지안코機會만잇스면터지려는素質이날로달로助長되고불어가는것을볼수잇는外닭이다(未完)

兩取合併延期와 反對委員報告會
◇…廿日夜仁川公會堂에서

旣報=한바와如히仁取合併에對한仁川府民의反對運動은京畿道米田知事의仲裁에依하야一段落을告하엿슴으로欣喜熱狂裡에서反對實行委員들은去廿日밤八時부터山手町公會堂에公職者外市民多數를召集한後實行委員長力武嘉次郎氏로부터一場報告가잇섯스며同時에數三氏의繼續報告가잇섯는데左記와如하더라

◇力武嘉次郎氏=氏는這般以來의經過報告가잇슨後別項에揭載된第一項의合併延期의條件에는多少關聯치안흘수업스나其實은永永解決된것으로思한다는說明과府民反對熱誠에對한致謝가잇섯다

◇杉野榮八郎氏=合併假契約은全혀解體되엇다 우리는將來大仁川을建設하는同時에더욱結束力을鞏固히하면如何한일이라도貫徹할줄노思하는바公職者諸氏는適宜한方法을研究하야仁取株參三萬千株반가지다면어더한野心家가出現한다지라도足히憂慮될것이업다고快言을發하며從하야青年團에除名된人物을復權케하는것이엇더할가하는說明이잇섯다

◇後藤定平氏=우리의熱望은諸氏의熱心、忍耐、努力으로써達成、엇다는謝意를表한後더욱團結力이强大하기를希望하며압으로取引所에對한知識을涵養하며努力하자고하엿다

◇結城氏=우리는團結이아니면勝利를發할수업다는說과그리고仁川에顧客을集中케하자고一場演說을發한後青年團에除名된大平及辻川兩君은當分覺醒의希望이업슴으로復權케할수업다고하엿다

◇孫亮漢氏=逆天者는亡하고順天者는興이라는말로合併延期의謝意를表한後前記數氏의말을辭謝하야朝鮮人各位에게압하엿다

◇大石宇吉氏=우리町里總代는道知事에게感謝狀을送呈하자고言明한後力武氏로부터仁川府民의萬歲三唱으로閉會하엿다(仁川)

養蜂講習會
鐵川三共實業社에서

忠南鐵川郡에서는三共實業社主催로鐵川郡山南面에서來二十四日부터一個月間豫定으로養蜂講習會를開催한다는데目下同講習會講師인孟鳳鎬韓喆敎兩氏는社員數十名을命하야講習生募集에紛忙中이라하며講習生은兩處合하야一百五十名만聽講케하다더라(鐵川)

沙里院의 停電復舊
電力不足으로

(沙里院) 京義線沙里院電氣는지난三月二十四日부터電機의故障으로因하야停電이되어伊來斷續치못하엿든데發電所인沙里院事務所에서는即時로東京新瀉鐵工所에서技師一名을請來하야最善의努力으로修繕한結果지난十九日부터復舊가되엇는데이번停電으로因한損害는大略破損機械代가一千五百圓收入減이三月分七百八十圓四月分二千圓假據이라하며沙里院電氣는電力이넘우不足하야機械發動에電氣를利用할수업는것과市民一般이다電燈을使用할수업시되어서이미申込한市民에게限하고새로申込을受理하지못하는데對하야市民一般이大遺憾으로녀이는바인데大大的으로이러한振興의改善을하지안흐면안될터이며電力不足으로因한市街發展上莫大한影響이잇는것도事實이라더라(沙里院)

禾湖新幹會 支會設置可決
準備委員選定

全北禾湖에서는去十三日에該地農民同盟會館에서多數의集合으로新幹會支會設立에對하야長時間議論한結果設立하기로滿場一致可決하고準備會를組織한다음과同時에左와如한準備委員을選定하고同五時에散會하엿더라(新泰仁)

◇準備委員=朴東洙 朱洛麒 崔宗奎 朴魯榮 金福洙 金奎琫 [illegible]鶴 盧錫西

咸興青年會 執行委員會

咸興青年會에서는第一回執行委員會를去十七日에同會館에서開하고左와如한決議文을發하엿다더라(咸興)

◇決議文

一、統營金洪正의自族侮辱에關한件

金洪正의行爲는我族의侮辱일뿐아니라積極的으로우리大衆運動의敵임을認하고其罪惡이發生케된社會的原因을摘發하야大衆압헤暴露하야其罪惡의病根을除去하기에努力하며當事者金洪正은社會的으로埋葬할일

咸興五老少年定總

咸興郡五老里에잇는五老少年會에서는去十七日에當地青年會館內에서第四回定期總會를開하고臨時議長尹成鶴君의司會로諸般事項을議決한後左의執行委員을改選하엿다더라(咸興)

◇執行委員=高楨奎 朱敏奎 黃禮鏞 盧殷鉉 尹成

盛況이豫期되는 安東市民運動會
◇…廿九日練兵場에서

轉車競走優勝旗一個團體優勝旗一個도豫想되더라(安東)

安東縣學園主催와本報安東支局外五六團體의後援으로市民大運動會를開催키로되어競技日字는來二十九日이오場所는練兵場이라하며運動會準備에對하야部門을組織한바本部司令部審判部設備部警護部會計部衛生部로分하야各各事務를擧하고以外各部幹部를總網羅하야集金部를設하고贊助員을大大的으로募集中이라는데今番運動競技에參加하고자하는各公私立學校其他團體或個人이라도申込함을先期하야提出하라는바場所는安東市事務所요期日은二十七日外지라하며當日賞品으로는對校優勝旗一個[illegible]

白鷗青年創立
各部委員選定

全北金堤郡白鷗에서는同面有志李丙鋼金致祥諸氏의發起로去十八日白鷗青年會創立總會를同面鍾山里李丙鋼氏自宅에서開하고金炳德氏司會로金致祥氏의趣旨說明과規約修正이有한後會長及各部任員을選定하엿스며其他諸般事項을新任委員會에委任하기로하고同午後六時에閉會하엿다는데當日被選任員及各部署는如左하다더라

◇任員及部序 ▲會長金致祥▲副會長李殷鎔▲書記金永斗▲庶務部金炳憲外三人▲教育部尹鳳權外三人▲體育部金宗迪外三人▲財政部徐基鎔外三人▲社交部金致祥外三人▲顧問金正俊崔公楫金洛元

宣川英語講習

基督青年會館主催로

宣川基督教青年會에서는同會館에서來二十五日부터英語夜學講習會를開催하다는데그規定은如左하다더라(宣川)

一、定員 甲班三十名 乙班三十名
一、入學資格 甲班은初步、乙班은讀本三卷을배울程度
一、志願期日 四月廿三日外지
一、課目 讀本及會話

禾湖農盟委員會
落成紀念式其他決議

全北禾湖農民同盟에서는去十七日該會館에서同例會를開하고左와如한決議를行하엿다더라(新泰仁)

◇決議事項

一、負擔金에對한件 會員負擔金은今秋定期總會外지延期하기로함
一、會館落成紀念式에對한件 五月八日(陰四月八日)에落成式紀念式을擧行하되그實行方針에對하야는執行委員에게一任함
一、新幹會禾湖支會設立準備의件 本會에서는支會設立에對하야積極的後援하기로함

仁川各團體 『어린이날』紀念
◇準備에紛忙

七個團體를網羅한仁川少年聯合會에서는來五月一日『어린이날』을紀念하기爲하야當日午後一時부터數千名의少年을上仁川驛前廣場에集合하야少年軍樂隊를先頭로旗行列을하는同時에萬餘枚의宣傳紙를全市街에撒布하기로하고同八時부터는山手町公會堂에서左記와如한紀念式을行한다더라(仁川)

一、少年『데이』란무엇 郭尙勳
一、少年運動의意義 金惠振
一、童話 申忠雨
一、遊戲數種 가나리아會
一、萬歲三唱 一同

釜山鎭青年定總
年齡制限과其他決議

釜山鎭青年會에서는去十七日同會館에서第三回定期總會를開하고左의決議가잇섯다더라(釜山)

◇決議事項
一、年齡三十歲以上超過한者는特別會員으로할것
一、月南李先生追悼會는府內各社會團體와聯合하야開催할것
一、統營金洪正의罪惡을糾彈하는同時에府內社會團體에激勵文을發送할것
一、永興及海南事件責任當局者에게警告文을發送할것

◇新任委員=金龍俊 孔潤九 金用浩 金權洙 尹斗海 李聖浩

元山女青講演會
廿三日天道教堂에서

元山女子青年會에서來廿三日午後七時부터市內天道教堂內에서講演會를開催한다는바演題及演士는如左하며當日場內를整理하기爲하야入場券을販賣하리라는데入場料는十錢均一이라더라(元山)

◇演題及演士
各國婦人運動과朝鮮婦人運動 張元熙
女性으로본社會相 鄭鍾鳴

尙州書畫展覽會

慶北尙州에서는去十九日午後四時부터當地佛教布教堂에서洪義植、朴挺漢、岡本一諸氏의發起와本報尙州支局後援下에來尙中인靈林名家韓晳硏、朴逸憲先生을請聘하야書畫展覽會를開催하엿는데當日參席한會員은五十餘名에達하야前無한盛況裡에同七時頃에無事히散會하엿다더라(尙州)

●木浦少年團遠遊會=全南木浦少年團에서는去十七日에遠遊會를열고曹文煥君의引率下에團員二百餘名은午前九時에出發하야近地群山洞에가서約三時間동안이나童話及其他遊戲等을滋味잇게맛추고團歌를高唱하면서活氣스럽고도愉快한가운데本會館에歸着하야萬歲三唱으로無事히散會하엿다더라(木浦)

●谷城勞働慰親會=全南谷城勞働親睦會에서는去大日本會館에서開[illegible]하고數百勞軍은赤色會旗를揭揚하고郊外에集合하야唱歌舞蹈에興味津津하야盡日토록消暢하고萬歲三唱으로散歸하엿다고(谷城)

平壤漫筆
電氣府營祝賀會
平壤駐在 一記者

來五月二日平壤府에서는電氣府營祝賀會라는것을開催하고또한동안떠들거리며놀아볼作定이라는데그費用總額은一萬一千圓의巨額으로前番府協議會의協贊外지得하엿다고한다.

◇一萬一千圓이면今年度平壤府豫算歲出臨時部電氣費總豫算(一萬六千五百圓)의七割이되며平壤府民의膏血을짜내이는平壤府稅金總收入의一割에近當하다

◇大體 平壤府가하루동안뚱땅거리며놀기爲하야不景氣판이때에一萬一千圓이라는巨金을액기지안코虛費하는裡面의事情은무엇인가?!

◇平壤電氣會社의橫暴에憤起한府民의輿論이燎原의形勢로全府民을喧騷케하야當時經營府를爲始하야道廳、警察署等은勿論日人有力者들은모다所謂『日鮮融和』에重大한影響이잇다하엿고또한이러케되도록利用을하려고하엿섯다 그리하야오는날와서는電氣府營은所謂『日鮮融和』에對하야偉大한成功이라고떠든다

◇即우리는電氣會社의橫暴와또한그無理한料金을反對하엿슴뿐이지마는그들은『電氣府營』을그本意以外에特別한다른意味를包含시켜가지고 今日에는此가大成功이라하야巨金을액기지안코寬德誇張으로써此意를더욱徹底히하고印象을더욱深刻케하려한다

◇電氣萬能時代라하야所謂『日鮮融和』에도電氣問題로써더욱成功을하려는[illegible]何如間府民의血肉인一萬一千圓이라는大金을가지고하루人동안뚱땅거리며노는데濫費한다는것은不可한일이다 더욱이貪窮한우리로서는反對치안흘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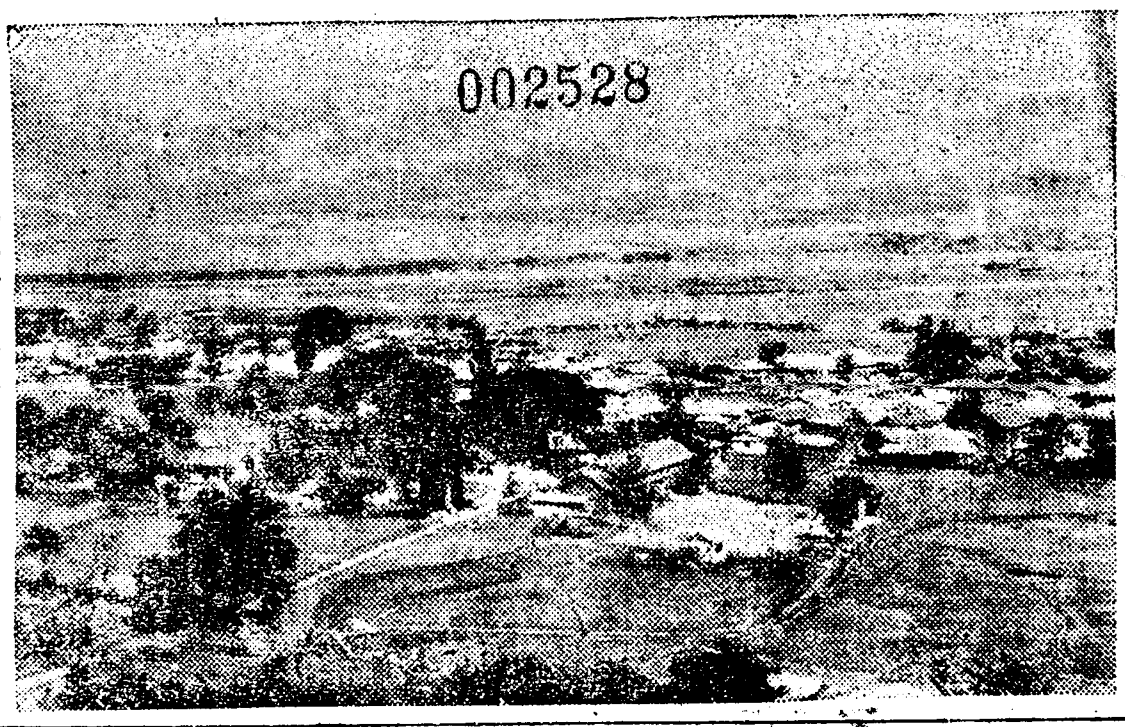
北金融役員改選

平壤의北金融組合은平壤朝鮮人市街의唯一한金融機關인데來二十八日에評議員十人監查三人의滿期改選을行한다고한다

◇엇더한運動을勿論하고卑陋醜惡한일이만히流行됨은本欄에서도만히指摘하여온바이지마는如此한金融組合의選擧에도或不正한일이업지안엇슴은世上이미널리아는바이다

◇此金融組合이繁昌하며衰退하는것은六百餘組合員의問題뿐아니라平壤全市民에關係가重大한즉此의役員은相當한信用과責任을아는사람으로써함이可할지오派黨이나猜忌로써臨함은不可한일이니組合員諸君의極히注意할일이다

地方紹介 12
南國의숨은꼿을 理想鄉
求禮郡 其一


※……寫眞은 求禮郡全景

南朝鮮地方의名山인智異山이점잔이東北으로안젓고十大江의하나인蟾津江이맑게西南으로구비돌아

仁山智水가

모혀이름조차아름다운求禮郡이되어잇다 山기슭마다竹林이욱어지고桃李가봄빛을자랑하는곳에 알로는넓고기름진平野가열려잇는그사이마다閑寂한村落이여기저기뫼여잇서맛치仙境의理想을그대로實現化하엿다 智異山에서나는材木으로는집을짓고 맛잇는山菜를배부르게먹으며넓고기름진平野에서나는米穀과棉花는우리求禮사람들의먹고입기에넉넉하다 河東隣大方面에서들어오는海産物을사기에도足하며 白雲山智異山에서나는各種藥材며 山洞에서나는山菜도흔하며 病으로苦生하는兄弟를救할수잇고 蟾津江에서나는銀魚며黃魚는우리求禮의자랑할만한別味이다 山과江과들에는鑛物이豐富한지라 居民의生活이裕足하고交通은多少不便을늣기나

習俗이淳厚

한것은더할수업는자랑이다 우리고을이[illegible]의上古時代는史籍이漠然하야可考할바無하나百濟時代부터는仇次禮縣이라稱하엿고 新羅景德王時에百濟의領地를取하야求禮라改稱하엿답니다 鷄林記에『本縣介於百濟新羅之間受禍偏酷民不聊生』이라고記錄에남어잇는것과가티 當時人民들은百濟兵士에게는搾取와侵害를當하고 가을에는또다시新羅兵卒에게 過重한軍需品을提供치아니치못하니그生活이얼마나不安恐怖를늣겻스랴 李朝時代에들어서는全北南原에附屬하엿다가 或은谷城의支配도바더보앗스며 或은各郡의[illegible]당한일이한두番만아니엇답니다 그러나

土地가肥沃

하고 風俗이淳古하야自古로民俗가튼것이업섯스며名人으로는文孝公尹孝孫이 此地方의名賢으로 國家를爲하야忠을다하엿슬뿐아니라 神人이共感할孝子로서 人子의道를盡한지라 尹公을爲하야 溫水가湧出하얏스며苦菜가甘味를帶하엿슴으로世人이尹公菜라稱하얏다하며商賈들은特히德成市를開하엿다한다 一代의德治家로權威家이엇섯스며湖南巨富이든 求禮王處中이도此百餘年을지난今日에도 오히려그名勝이遠近에藉藉한가 智異山의麗姿 古로守令들이 山間小邑으로任命되면 欣然히 한番을고轉任의辭令을接할때에는

理想的樂地

를떠나기가앗가워서 두番운다는말이잇스니 이것이엇지우리求禮를떠나 다른고을에또잇스랴 (계속)

妙香山探勝
本報平原支局主催로 五月五日出發

三春佳節을期하야北國의名勝妙香山、藥山을探勝코저本報平原支局에서는探勝隊員을目下募集中인바一般志願人士들은本月末日外지本報平原支局에申請을要한다하며其他詳細事項은主催側인平原支局에問議함이可하다더라(平原)

三週年紀念 讀者慰安抽籤
本報利原支局의計劃

本報利原支局에서는第三週年紀念事業으로讀者慰安抽籤을하게되엿는바本報를愛讀하는者에게抽籤券을配付할터인바四月末도定한것을抽籤資格은四月中으로부터本支局의事情에依하야五月中旬으로하며抽籤期日은五月末日로하엿는데其賞品은左와如하다더라(利原)

◇賞品=一等一人本報四個月分▲二等二人本報二個月分▲三等三人本報一個月分▲四等四人新朝鮮四個月分▲五等五人新朝鮮三個月分▲六等六人新朝鮮二個月分▲七等七人新朝鮮一個月分但代金未納者는此限에不在함

地方人事

▲姜世馨氏(在東京新朝鮮社長) 歸國人事次昨日本社來訪
▲車錫永氏(本社楊州支局長)去十七日遭內艱
▲孔鶴舞氏(本社熙川支局長)局務整理키爲하야東長洞東倉新豐四面에十日間豫定으로出張

安東市民大運動會

◎運動日 四月二十九日
◎運動場所 安東練兵場
◎申請處所 安東邑內事務所
◎申請期日 四月二十七日外지

主催 安東[illegible] 安青 安東女青 實業聯盟
後援 東亞、中外、朝鮮三支局

社告

本報高靈支局을左와如히設置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一、支局名稱 高靈支局
一、支局位置 高靈郡邑內
一、支局員職氏名
支局長 申喆休
朝鮮日報社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盧鎭世
朝鮮日報載寧支局白

本支局에서會計元鴻燮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會計兼記者 金哲圭
記者 朴文植
朝鮮日報安岳支局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一、分局名稱 孟山分局
一、分局位置 孟山郡邑內
一、分局員職氏名
分局長 朴炳鉉
總務兼記者 朴龍洙
記者 金瀅容
朝鮮日報德川支局白

本支局에서古阜分局을廢止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笠岩分局記者 柳然基
朝鮮日報井邑支局白

本支局에서永川分局北面駐在記者를左와如히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北面駐在記者 朴洛賢
朝鮮日報廣州支局白

本支局會計尹柱翼君은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金奎琮
會計 金谷珍
朝鮮日報兵營支局白

本支局記者柳基龍君은事情에依하야辭任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平澤支局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總務 金澤烈
記者 金晃元
記者 金蒼鉉
高山駐在記者 金文開
朝鮮日報江界支局白

本支局에서讀者諸位의便宜를圖키爲하야位置를左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一、支局位置 泗川邑內平和洞
集金員及外交 朴實鍾
朝鮮日報泗川支局白

山梨縣에 大颶風 數百戶瓦葺飛去
심상고등학교가결단나소동

이십일 오전아홉시경에 일본 산리현북도류군대원촌(山梨縣北都留郡大原村)을비롯하야 부근일대에는 큰회오리바람이 습래하야 대원촌심상고등소학교(大原村尋常高等小學校)가 파괴되는동시에 집웅이벗거진 인가(人家)가 수백호에 달한다는바 때마츰 학교에는 수업중임으로 일대소동이 일어낫섯다는데 다행이인축의 사상(死傷)은 업섯다더라

一名重傷 一名慘死
수원군서호개수공사장에서

수원서호 방축개수공사장(水原西湖防築改修工事場)에서 일을하든진위군읍내(振威郡邑內)에 원적을둔최귀봉(崔貴鳳)(二六)과 수원군음덕면 남양리(水原郡陰德面南陽里)에원적을둔 박영순(李永順)(三四)두사람은 지난십구일오후세시경에 서둔리(西屯里)뒤산에서흙을파내리고 잇든중 돌연간 산이문허저서 최귀봉은 흙속에 파뭇처죽고 박영순은 입편다리에 중상을 입엇다는바 최귀봉의 시체는 경찰에게인도하기로 하고 박영순은 즉시수원도립의원(水原道立醫院)에입원하엿는바 생명이위독하다 더라(수원)

富豪賭博團 一網打盡
두명만어대로도망

안주성내(安州城內)와신안주면(新安州面)에잇는상당한재산을가진 모모부호여명은 오래전부터 사람의눈이 번다치안흔으슥한곳으로 차저다니며 거액의금전을 태이고 도박을하던바안주경찰서에서는 이를알은지는 오래엿스나 그들이 유력자이니만큼 그단서를엇지못하야 비밀히활동을 계속하던중 수일전에 비로소 도박장에서 현부검거하엿는데 그중에는 전과자도잇스며 두명은 어대로 도망한것으로 목하 수색중이나 대포된 여덜명은 전부취됴를마치고각각처벌하엿다더라(안주)

米穀商組合罷業後 魚畜商又盟罷
점점험악해지는남포시장쟁의 市民大會가열릴듯

진남포(鎭南浦)미곡상조합(米穀商組合)에서 지난십칠일부터 동맹파시를 하엿다함은 긔보한 바어니와 어축상(魚畜商)측도지난십구일부터또동맹파시를단행하엿다더라(진남포)

各處時計舖를 專門으로詐欺
범인은일경피착

지난십일일 오전에 어떤자하나이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에잇는명치당(明治堂)이라는시계포에와서 시내 관텰동(貫鐵洞)에잇는경호려관(京湖旅館)에는서흥(瑞興)군수(郡守)의일가족이두류하는중인데 시계를 사고자하니 함께시계를 가지고가자하야 시계포의점원과 한가지로려관까지 와서는 시계를잠간뵈이고 나올터이니 몇개만견본으로 달라하야 가지고그시계중에서 시가약백원가격의 금시계세개를 가지고안으로 들어간후 그대로자최를 감추워버린사실을 비롯하야 또십삼일에는 시내본정(本町)에잇는 촌목(村木)시계포에가서 시내인사동호해려관(市內仁寺洞湖海旅館)을 빙자하고 동일한수단으로 시가 약일백오십원 어치의금시계를 횡령도주한사실이 잇서 그동안 종로서 사법계에서는그범인을 데포코저 활동을개시하야 시내각시계포에 형사를 매복시키엇든바 이십일 오전에 본정삼뎡목(本町三丁目)에잇는 가지시계점(加地時計店)에엇더한자가 나타나서 동일한수단을 써서 시계를사취코자 하는것을 마츰매복중이든 종로서 형사가 즉시 본서로인치하야다가 목하 엄중한 취됴를 하는중이라는데 이자는 황해도해주(黃海道海州)출생으로 일뎡한주소가업는 권과일범의 민병희(閔丙熙)(三四)라는자로 전긔 범행이외에도 여죄가잇는듯하야 취됴중이라더라

暴行한 新安州驛手
안주서에서취됴

경의선신안주역원(京義線新安州驛員)들이 손님에게대하야 넘우불친절한탓으로 일반이 비난한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전긔역에 근무하는역수김산식(驛手金□□)이 신안주면원흥리(新安州面元興里)에잇는리준모(李俊模)라는사람이역부연(驛飲事)에서 세수를 좀하엿다고 종(鍾)으로란타하야중상을내이엇슴으로피해자리준모는진단서를첨부하야 안주경찰서에 고소를제긔하엿는데안주서에서는엇던이유인지 아즉 취됴를하는중이라더라(안주)

學議員事件解決

시내장사동(長沙洞)일백오십칠번디 리규현(李圭賢)씨는 지난번 선거한경성부 학교평의회원(京城府學校評議會員)선거에당선한 시내종로(鍾路)일뎡목팔십사번디장수경(張壽慶)씨를상대로 당선(當選)무효(無效)를 경성부(京城府)에제출하엿든바 피유권자장수경씨는 대정십오년 이월십일일전에 시외에 거주한관계로 취소신립(申立)을경 아니라 피선거권이 업다는바선렴을정수한경성부에서는세밀히 조사한결과 그선거의 피선거권은만일개년의 시내주소도되려리가잇슴으로 장수경씨는 당선히자격(資格)이잇다는리유로이미신립을각하하엿다더라

詐欺常習犯 檢事局送致
사긔횡령사건으로

개천구읍내(价川舊邑內)에잇는 오모(吳某)란자는권일헌병보조원을 다니든자인데 사긔와횡령을 상습으로하든중 얼마전에는 엇던자와 공모하고 부호의미성년자대를 유인하여다가 토디문서를 위조하여가지고 수천여원을횡령해먹으려다가결국발각되어개천경찰서에서오래동안취됴를마치고 지나간 십구일에일건서류와함께 평양디방법원 안주지청검사국으로송치되엇다 더라

映畵俳優포君 殺人未遂追訴

【로스안첼스二十日發】 재판소검사국에서는 유명한 활동사진배우(俳優) 「좀、커리―」를 살인미수죄로 추소(追訴)코자하야 최근에 배심관(陪審官)에게 요구하얏는데 그는이것도 「하리웃드」에서유명한녀배우 「맛케미―」의 사건으로인하야 「맛케미―」의 남편인 희극배우 「헤먼트」를구타하야 빈사케한일이잇는때문이라더라(로스안첼스발전보)

米挾雜輩橫行

대구부(大邱府)근디에서는 근일 쌀협잡배(米挾雜輩)가횡행함으로 대구서에서는 범인을 데포하려하든중 필경두명을 데포하여노코 방금엄중히 취됴중인바 그들은 이삼명식일조를 지어가지고 길거리에섯다가 촌(村)사람이 쌀을지고대구장에 팔러오면 쌀을사자고말한후 가기가기조곰엿물로 엿을싸지되어가지고 한명은 집머지고 압흐로보내노코 한명은 돈을집에두고가지고 오지아니하엿스니 함께가자고함으로 부둑이 짐하고가면 찻기어려운골목으로 부둑이짐을 쌋고단이다가 말하기를 커편에보이는집에 잠간단여나오겟다함으로 쌀임자는바라고잇다가 오래되도록 나오지아니한즉 그편사람은 도모지온데를 업다함으로 부둑이 빈주머니만 쥐고도라가는일이 빈빈한사실인바 이와가티 경계가끈난한예에 협잡배가만하 매우주의할 조라는데 전긔 련도자를 데포하려고계속활동을하는모양이라더라(대구)

咸興各團聯合 月南先生追悼

고월남리상재선생서거(故月南李商在先生逝去)를 추도하기위하야 지난십구일 오후네시에함흥셋네단체의 발긔로 당디동명극장(東明劇場)에서추도식(追悼式)을 거행하엿는데 홍긔진(洪基鎭)씨의 식사를 비롯하야 약사추도문랑독 추도가 추연당(略史、追悼文朗讀、追悼歌)이 잇섯스며 선생의 최후노하신축음긔(蓄音器)의유음(遺音)에는 청북에 잠긴장래에 술퍼마음으로 다시 오시지못할선생의 일생을 묵상하엿다는데 동오시반에 폐회하엿다하며주최는데는압에와갓다더라

主催 咸興商業會▲咸興靑年會▲咸興基督靑年會▲咸興女子靑年會▲咸興勞働聯盟▲咸興天道敎靑年黨▲咸山醫師會▲咸興朝鮮日報支局▲咸興中外日報支局▲咸興東亞日報支局▲大衆新聞記者同盟▲新昌里勞働靑年會▲咸興女子基督敎靑年會▲咸興靑年聯盟(함흥)

天安驛前에서 請客人칼부림

지난십팔일오후 팔시에 텬안(天安)을 통과하는봉텬행급행차에 텬안서하차하는좌좌목(佐佐木)이란손으로 인하야 텬안역구내에잇는 련중이란자와 마노다려관의청객군박학봉(朴學奉)사히에 싸홈이일어나 련중이가 칼로박학봉의손을 찔러서 큰혈이낫자하야 군중이 둘러싸고고함을치는 범인은 도망을하려하고 경관은 다리고 가서 취됴를 하는중이며 피해자는 합마의원(合馬醫院)에서 치료중하엿는데그원인을듯건대 차에서나리는 손의행구를 련중군이 바다가지고 자긔려관으로 인도하려할적에 련중이가 텬안려관으로 다려다주려함으로 이에서 시비가시작된바 련중이는 정거장에잇스면서 항상텬안려관의 청객군노릇을하는고로 평소에도 련중군들에게 미움을밧던자로 이번과가 혼란이생겻스며 경찰서에서는 당원만보호해두엇다가 롱려보냇는데 그처치를밧은 의심한다더라

내고장의人物과傳說 (二十一)
가진風霜다격고 猝地橫財成巨富
━조실부모고생하가어진배를서로맛나 권당자본방어상으로재산이작고붙어━
◇德源巨富 鄭萬福의逸話

◇정만복(鄭萬福)은 중종(中宗)때의사람입니다 어려서 빈한한 집에 탄생하야 이세에 부친을여의고 칠세에 모친조차 황텬의길을 떠나 혈혈단신이의지할곳업서 당숙에게 길러게되엇습니다 그러케팔자가 긔구하게되고보니 천자(千字)한권도 못배우고먹고자고나면 지게신세밧게 질것이업게되엇습니다

三十當年老總角 貧寒家에得配匹

◇그러되어 이십이넘도록 장가도못들고홀홀이이리뒤둥거리 박켜렴 홀려다니다가 이십구세에 예처유장가라고 들게되엇스나 미천이라고 두주먹밧게업는로총각에게 부자집 처녀는 맛도 못보고 책력보아 밥짓는 집의 사위가되게되엇습니다 그 한외딸로 신부도 장을어니와 고 빗진도하나업서 효수라고는 처마외칠에쳐러고인물편빗하나 빗개업더랍니다 당숙의 집으로 우혜(于惠)하야 살다가 살년만에 게예지면한정과물할만한량판 한게를잡반하야 가지고살림이라고하게되엇습니다

賢妻의도음밧고 고용으로면명해

◇살림은난후밤낫으로 안남편은 이집저집 품팔아 연명하고안해는바누질품과 방아품으로 미천을삼든차에 하로는일과가 불순한까닭으로 만복은 집에서낫잠을자는중 자긔안해가 창밧에서 ... 하는일이 낫는길은 이 압바다에서 방어(魴魚)를 무수히잡앗다는데 당신은 집에서잠만 콜콜자니 그리지말고 나가어사 다가장사하라고」 권함에따랏습니다 만복은미천이 업다고 하얏더니 그이 안해는 ... 가지고나와서 ... 쥐여왓더랍니다

千兩資本魴魚商 横財하야致富해

> 投稿者德源金日千 本報二個月分進呈

◇만복은 돈을바다가지고바다에나가니 봉수 열두배에 방어가갓득찻는데 세마츰 오후늦열면이라 남들은 썩을가겁하야 한머리도사가지 안홈으로 어부들도 걱정하고 잇는차에 만복은그고기를 도매하고 갑흔헐량으로 덩하야 소금에다 가처리고나니 별안간고기갑이 고등하야 만복에게 고기살어왓다가 만복에게 고기를팔라고함으로 한머리에 한량폭닷돈식밧고파니 오배의 리익을

十餘年間에成巨富 咸南에서第一有名

◇그외가티 오배되는 리익을어더가지고 삼천구백량에 리자를 려가지고 쇼금석위 십여년로방하고 남어지 삼천구백량으로 ... 하고보니 되는판이라 한되만심어도 섬으로 추수가 되어 순식간에장자가 되엇스며 그후부터는 덕원서 대일가는 부자가되고 남으로녀복을 사둘이고 남편복당을 장만하야 덕원일군에 정만복의토리아닌것이 업서답니다 덕원읍과 함경남도에는 데일갑부로 소문이나고 한평생이 삼천대여의 아들불투어 초년고생이 일장춘몽이되고 부원군팔자 부럽지안케평생을 마치엇는데 지금정만복의이야기는 우리덕원서는모르는니가 업습니다 (끗)

金鎭國氏對 元山署長訴訟
대일회중인신문

원산부상리일동(元山府上里一洞)에서 자동차업을경영하는김진국(金鎭國)씨는작년봄이래 원산경찰서(元山署)의신궁(神宮)서장 뎡상(井上)경부와 및원산해수욕회사(元山海水浴會社)를상대로 ... 폭천칠백오십원의 영업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營業損害賠償請求訴訟事件)은 함흥디방법원을거처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이래 사실진상됴사를해오든바지난이십일오후두시부터원산서에서 리(李)판사로부터복심법원의촉탁에의하야 대일회중인신문(證人訊問)을 하엿다더라(원산)

淫婦逃躍

경북영일군 연일면중단동(慶北迎日郡延日面中丹洞)에 거주하는 량윤조(梁允祚)(二五)의 처 리학순(李學順)(二二)은 전긔량윤조와 결혼한지 십여년에 사오인의자녀를 나케되엇스나 원래품행이 부정하야 일즉동리에잇는 최유생(崔有生)(三五)이란자와 정을통하고 종종추행을 함으로 본부도 알게되자 이것으로인하야 가정에 풍파가 쓴허질사이가 업섯는데 얼마전에도 전긔동리에서 풀의짓을하고잇든차 현장에서 본부에게 발각되어 간부는도주하고 녀자는 잡히엇든중 이삼일후전긔 간부는 남이모르게 동리에들어와서 전긔리학순을 어머다숨겨두고잇섯든바 본부는 영일주재소에 고소를제긔하고 사방으로 차저다니든차 수일전 포항영일교상(浦項迎日橋上)에서 전긔최유생을 우연히맛나게되어 힐난하든차 포항서원의손에 데포되고 리학순은미데포중이라더라

內外間싸움하고 割腹自殺하려
처가벌어온벼로술사먹고 책망하는안해에게분내어

충남서천군화양면 봉명리(忠南舒川郡華陽面鳳鳴里)에 거주하는 김봉술(金奉述)(三□)이라는자는 지난십이일에 자긔처와 싸우다가 단도로 자긔배를찔러서 한치이상의 상처를내엇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들어보면 전긔김봉술은원래술을 잘먹으면 술을먹으면 각금불량한행동이 불소하다는바 당일에는자긔처가 남의집고용을하야 버던 쌀을바다가노흔것을팔어서술갑에 ━━비하얏슴으로 그처가애원한말로 책망한즉 그를눈하게녀기어 그와가티 처배를찔른것된것이라는데 일반은 전긔김봉술의악독함을비평한다더라

사람쇼여서 돈十圓먹고
류치장신세

달성군옥포면김흥동(達城郡玉浦面金興洞)삼백오십삼번디김순이(金順伊)(三五)란녀자에게 경남창녕군청산면방곡동(慶南昌寧郡城山面方谷洞)김치선(金致善)의안해가차저와서 말하기를 대구동리에엇던한사람이 첩을구하노라고 녀자한사람을구하야 주면상당한보수를주겟스니 ... 옥포면김흥동(玉浦面金興洞)에 ... 말하며주면상당한보수를주겟스나 함으로 순이는그것을 귀히삼아 ... 수도 돈삼십원을바든것이 발각되어 범인은대구서에 데포된바너 자유인죄도 방금엄중히 취됴중이라더라(대구)

◇어린이準備音樂延期 오월회(五月會)에서는 어린이날준비음악회를 이십일밤부터 개최코자하엿든것은 이십삼일오후닐곱시부터경성일보사래청각(來靑閣)에서개최하기로변경하얏다고

少年竊盜團檢擧

수원경찰서(水原警察署)에서는 지난십일일 련령십오세되는 소년오명을 검거하엿는바 그들은 지난가을부터 천후사차나 수원신사(水原神社)에 돌어가서 그 구(□)의돈을 절취하여 피해액이 륙십원에 달한다하며 계속하야 취됴하는중 이라고

醉車掌暴行

지난십구일오후 여섯시에 함흥(咸興)흥원나신북청(新北靑)으로향하는길차 백십일호 차에다니는 차장홍중(弘中)이란자는 술을먹고 손님과 싸운일이잇다는바 이제그자세한내용을 들으면 함남홍원읍(咸南洪原邑)에사는 도형수(都亨洙)의 처가함흥에서 사과몃개를 사가지고차에안커 오다가 커례안젓던사람이 좀불러고함으로 전긔도형수의처는사과세개를팔엇는데차장이 그것을보고서 아모말도 업시『고라』『바가』로 욕을하고 『차표』를빼아서가지고차장실로 가버리고 말듬으로 그차간에안첫던흥원에사는한진수(韓震洙)가 그것을보고 차장을 차저가서웨그와가티 녀자의 차표는빼아서가면서도 아모말이 업느냐고질문한즉 역시『고라』『바가』를 함부로 외우며 그사람에게도만흔포악한행동을 함으로 그사람은차장을 쏘고전진(前津)역에와서역장에게 그사실을 진술하엿든바 차장이란자는 술을취토록먹고 그외가티 하엿슴으로 일반승객들은 그차장의포악한행위에대하야 매우 분개한다더라(홍원)

母女가俱歿
水災에나타난人情美
━죽은딸의시체차즈러나섯다가 어머니마저흙탕물에싸저죽어━

마산(馬山)디방에는 지난십구일오후세시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밤을통하야 쏘나진폭우로 상남천(上南川)에는 별안간 홍수가 범람한다는데 면면히만흔생명과 재산을해앗는 상남천인만큼 부근일대의 주민들은공포에 싸혀잇엇는바 이십일 오후까지도 쉬지안코 퍼붓는중이며창원군진동면(昌原郡鎭東面)에도폭우가나리어 사동천(社洞川)에 홍수가 창일하는중인데 지난이십일 오전구시에 진동공립보통학교(鎭東公普)생도세명이 학교로부터 선생 박재하(朴載夏)씨의 보호를바다집으로돌아가다가 ... 그중에두아이는 겨우 생명을건젓스나 리동림(李東林)씨의 무남독녀(無男獨女)인리학순(李學順)(十三)은 마츰내 급히흐러가는 흙탕물에 싸저죽엇는바 그곳청년들의 모험녀 활동으로 겨우시체(屍體)만은 차자서 하며 이감보를 들은동숙의모친되는이가 급히 전긔 사천교로또차와서 죽은동숙을 울오며붙는 물가운데로 뛰어들어 시톄를차즈라다가 또한힘잇게 나려오는물결을 익이지못하야 무참히도죽엇다더라(진동)

한창피인 금강연안 앵화

◇봄은 어느듯 서몰어 반도강산에는 따뜻한 바람이 휘잣고 돈다 겨울석달 은죽은듯이자든온갓 나무입도쌔족 쌔족싹 이러 장차너울 대려하고 범싯 범싯옷는 각색옷송어는 산과들을번화하게 장식하야 온갓사람의흥분자아낸다

◇금수강산삼천리중에도데일 산명수려한쌍수산성(雙樹山城)에는 유독이조선의봄을 도마튼듯하야 금강(錦江)연안에 쏙늘어선 사구라꼿은 다른꼿보담도 더한층 번화한것을 자랑한다 인조대왕(仁祖大王)의주필(駐蹕)하신력사가 우리의긔억에 아즉도 뚜렷하고 충청도(忠淸道)오십삼관(五十三官)의수부라는장엄을 따라가지고잇든공북루(拱北樓)의형용이아즉도 남아잇것마는 선화당(宣化堂)이 도령으로변하고녯모양을자즐수업서다든꼿보다도 사구라가 홀로번화를 자랑케되노나!

◇그리고보니이봄을우리는그리길거울것이업고 우리는 그리 홍날것이업게되어 오후 백리 쉬지안코 흘러오는 금강물결의 출렁대는것이 물이어 봄바람에 부되처 공연히유심한 사람의무궁한늣김을대신하야하소하는듯 할뿐이다

◇이러툿유독이번화한사구라에는딴곳이차지하지못하는던등도달리어 밤여섯시가되면 꼿인지불인지분간못하게되고틈우에도꼿을미레도꼿이피어부질업시 질기는 청춘남녀의「노세노세졂어노세」는도 만히듯겟지마는왕왕이 행인들의집행이가 멈추며꼿김흔맥수(麥秀)의 곡조와 서리(黍離)의 노래도 업지안흔것이다 그러나 다른꼿은맥수의곡조와 서리의 노래에서도무궁한늣김이 잇슬여바는 이사구라야거긔에무슨 쥐랍이잇스랴!

◇봄은조타놀기조흔봄이다흥이도는봄이다 그러나 근심업는이에게 흥이잇고 팔자조흔이에게놀이가잇지우리에게는놀기조흔봄에겨정만더하고홍나는봄에 심증만더나노나! 훨보르는나비들아베맛낫다고춤만추지마라네춤보는우리가슴에는담못할무엇이떠돌뿐이다(사진은 금강연안에만개한사구라꼿)

仁川新聞配達 苦學學資負擔

인천공립상업학교 오학년에재학중인 김형보(金衡寶)군은 학자의곤난으로 밤이면 인천시내모일보 신문지국에가서 신문배달을하여가며 매월 십칠원이란봉급을 바뎌가지고 우금사오년동안을 고학하여오든바 일개년밧게 남지아니한 졸업을 보지못하게 되엇다는 내용을듯건대 그신문지국장인 대야(大野)씨는본래 동정심이풍부하야 신문배달을 반드시 전긔상업교고학생으로 사용하야 벌서두사람이나 졸업하엿다하며 계속하야명년이면 김군이 또졸업을하게되엇는데 대야씨가 지국장을사면한후 이디방을 떠나게되자 김군도딸아서 후임지국장에게 해고를당하고 중도에방황하게되엿든바 이것을본 인천신문배달조합(仁川新聞配達組合)은곳림시총회를 소집하고 결의한후 모신문지국에대하야 김군의해고한리유를 질문하고 동시에 김군의 취직할곳을 구하여주라고 십분교섭한결과 그지국으로부터취직은못구하엿스나 공부는할수업게됨으로동조합원일동은 지난십륙일에 다시회의한결과조합원이 신이인에매월오십전식거두어 김군의 만일개년학업을 계속케하기로되엿다는바 이에대하야 일반은 칭송하기를마지아니한다더라(인천)

竊盜團十名 一網打盡
근래희유의 대규모절도

지난십구일오후 여덜시 방경에 대구팔운뎡(大邱八雲町)방면에 수상한자한명이 배회함으로 즉시인치하고 취됴한결과 그는칠성뎡륙백이십팔번디(七星町六二八番地) 리춘하(李春夏)로 단상을 삼아시내각방면의 물품을 절취하야그것으로 밤삽을 지불하며남은것으로그의 가뎡의 용도를하여간다는바 절도단에는 전긔춘하의 아들두명까지 가담하엿다하며또춘하는 절도전과 이번으로서 약한달전에 대구형무소로부터출감하얏다는데피해금액이 상당함으로방금범인과의련락명을인치하고엄중히취됴중인바근래대구에서가장드문절도단이라더라(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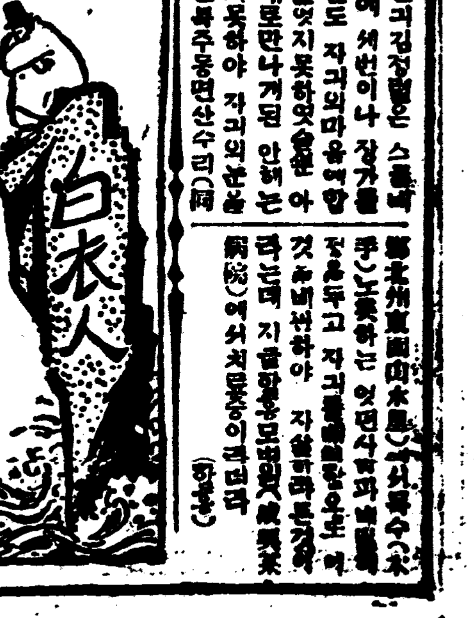
住所不定 宋石順(四□)
錦町二丁目 柳寅得(四□)
市場北通 朴貫鳳(□)
建西面院垈洞 李生伊(□)
七星町六二八 李春夏(三五)
同 李辛岩(二□)
同 李命岩(三□)
南山町九〇 朴壽洪(□)
七星町 金明植(□)
東雲町四九一 朴相鎭(三□)

溺死體發見

지난십구일 군산부외(群山府外)조선냉장고(朝鮮冷藏庫)압헤서불이농촌(不二農村)으로 통한길밋바다가에서남자시톄를발견하엿는데 즉시소관경찰관이출장검시하엿스나 주소성명은 아즉불명하다고

파盜賊

원적을 천안군성환면성환리(天安郡成歡面成歡里)에두고 현주가일정치못한 송갑룡(宋甲龍)(二□)과 원적을 가평군상면 항산리(加平郡上面恒山里)에두고 현주가또한일정치못한 윤희(尹□)(二□)의두사람은 공모한후 지난십칠일 오전한시경에 시외고양군숭인면암리(高陽郡崇仁面岩里)에잇는시내삼판동삼번디 박순득(朴順得)의소유인 파밧(葱田)에 이르러 파두단(二束) 가격 이십여원어치를 절취하야 소비한것을시내본뎡서(本町署)원이 탐지하고인치하얏다고



映畵小說 白衣人 (六十六)
李慶孫 作

상사일이 지낸후의 이야기다 서울남대문밧 직업소개소는어제나 그런이나 조곰도다름업시소개를 원하는사람으로 하나가득하다

커다란 창에는 가느른쇠창살이 수가 김생을 가두은 동물원집처럼 늘어서잇다 그창살에기대인 추커진 얼게들은 쎄니를케며로 못먹은 무리들이다 맥수라도마시면 피원노한 얼굴을하나히지금 정문에서 나타난다 그것은긔아침은 설렁탕으로 지내엇고지금도 주머니안에 이삼십전은잇지만 뎜심을사먹어서는 넘우나건방지다 래일일을 생각하니뎜심을 사먹어서는 아니되고허긔진몸에밧앗는 찌는듯이 더워서바람을 쏘이려밧그로 나오는것이다 벙어를칠한 푸른벽에엇개를기대이며 바람을 마신다

어머니 다친곳은 다행히발목파발등뿐이엇다 그러나 발등은그자리에서 중편파가터 부어올랏다

주인집의 소개로 병원에가기는갓다 의사는 그것을보니발등안뇌 삼이약간 으그러진것가탓다 써어놓어가기권에 잘드는편이조흔리라 생각하면서도 부은것나릴약만 서주고 상관업스니 래일ㅡ 오라하엿다 잘드는자는선언은 차차보아가며 하리라고생각하엿을것이다 그러나 이튼날또한 어머니는 제ㅡ발 덕분에 혼커게들이고 나흘바식을 열번스무번식 의사압헤 청하엿다 그것은주인집에게미안하여서견딜수업는까닭이다 그래서 의사는잘드는자는말은 하지도 안코리라고정하야노앗다『네ㅡ낫습니다』이약을발다가며 적하게만 하시면ㅡ』하고대답하야버렷다그래도 삼주일이나 걸리겟다는소리에 로인ㄴ긴 한숨을쉬엇다사실의사로서도 자긔의 한말이아주거짓말은 아니라고 인정난다안으로 약간상한 살뜰은 자연(自然)의 힘이낫게하여주리라는미덤으로도 자긔의 량심을위로하엿다그러나그것은의사가잘못해석한것이다사실자연의힘으로낫는병이 만키는만치만 그것은건전한몸을 가진사람의 일이요도의하여질환인 리영어머니 에게는 조금 부적당한소리이다

그러나의사의말이라리영이는 안심을어던다

다리를 절뚝ㅡ면서도 주인집일을 보아주어야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리영이는 한어라도더 먹고잇기가괴로웟다

얼는 돈을벌어서어머니의 고약갑이라도 벌어서 보내는것이데원이엇다 그래서부은발등이 나리는것 기다리지도못하고 뛰어올라와버리엇다

소식업시 사흘나흘식 쉬어버린「소바야」에는 다시가야 소용이 업슬것가탓다 설혹다시바라준다면 그집의일이란것은 자긔에게 아모리익도 주는것이업다 하다못해로자한가락도 떠얼아질곳으로가고십다

『먼ㅡ산 양정학교편한 정신업시 바라보고 잇스라니까누구인지자긔를 유심이흘ㅅ보고 잇는사나히가압해섯다 이놈은 가든길을 멈춘것인지 이곳와지온섬인지대관절 엇지하자그리 아커럼 흘터보는지를알수가 업다 눈은 청난황소와갓나 입술이두터우며 긔운차게생기엇다 그러나 상서롭지 안허보히는것이 정에돈다 공장의 직공모양으로 오원오십전짜리의 접푸룰 양복을입엇다 구두가 다떨어진다

『당신 직업 어드러왓소?』

『ㅡ네?』

리영이는 원심인지를 모른다

『당신 직업 엇고십호오?』

외국사람보다도 덕덕하고 엉성한 조선말을 한다

『ㅡ네ㅡ』

『당신 보통학교 마쳣소?』

『ㅡ네』

『고향이 어듸요?』

『개성이에요』

『웅 개성ㅡ 당신 부모업소?』

『ㅡ어머니만 계서요』

이처럼 대답하기를 자긔는못견이나 하엿는지 인지어떤 듯하야지도캐서 바쳐것가는 궁중하럽하기자미어든 언니의신분사칙엇까지 아니대답치를 못하엿다

『ㅡ그런데 왜 우는거예요』

『웅 가만잇소ㅡ조선일이엇소ㅡ그런데 현념이 문예부장은 정말요?』

밋자안는 리유는 무엇인가하야 그사람의 얼굴을 처어다보앗다 그눈은 악가보다 약간의 정다웁을보내주고잇다

『ㅡ네ㅡ……왜 그리세요』

『ㅡ天소ㅡ 하라오ㅡ』하면서 바른팔로몸을잡으로 가려가자는동작이다

『나는 말이지ㅡ 하니 커서 무어 먹으며 이야기 합시다 ㅡ 배곱흐지요』

『……갑시다』

이리하야 리영이는 알수업는사람에게 다정이 술려어간다 역사람의청을『김』 뜻햇던 해삼위에서는 수작외가슴을 으스러커런하고 써어안아준 수자의런인이든사나히다

基永……金成熙

妓籍에賣女拒絕로 養女頭髮을勒削
기생노릇시켜벌어먹자는 청구에불응햇다고륵삭해 犯人은方今拘檢中

지난이십일 오후 일곱시반경에 대구봉산뎡삼십륙번디(大邱鳳山町三六番地) 배자용(裵子鎔)(四□)은그의안해박재순(朴在順)(三□)과 싸움을하다가 결국재순이가다리고온딸옥선(成玉先)의 삼단가튼머리를 잘라버림으로 일대소동이 일어나결국 대구서에방금 인치중인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듣건대 전긔재순은 지금으로부터 일곱해 전에 배자용에게살려올때에 딸옥선이를 다리고와서 오늘까지 살아오든중 전긔시일에배자용은 그안해에게 말하기를 네가다리고온딸이벌서나이열다섯살이며 인물도상당하니기생에너허가난한살림사리에보태어나가자하얏든바안해는도커히자식의살을팔어먹는것은입당하지못하다하고 절대로 그리하지못하겟다함으로 이에분개한 남편은칼을들고 달려들어 옥선의머리를 비인바 이를알게된 대구서에서는즉시인치하고 엄중히 취됴하는 중이로써봉산뎡에서는또다시단데이로자가한실생것다 고이야기거리가되는모양이더라(대구)

妻福업는男子 飮毒自殺코저

함흥군오로리김정렬(咸興郡五老里金鼎烈)(三四)이라는 청년은 지난십칠일 오후한시경에 자긔집안밧에서양잿물(苛性曹達)을 먹고자살(自殺)하려고하는것을 그의 모친(母親)이 발견하고즉시응급치료를하야 생명에까지는별려가 업섯다하나 매우참혹한 생래에 이르러 일시는일대소동을 일으켯다는데 이커그원인은